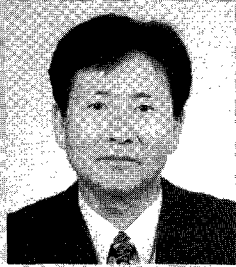


# 채란 양계산업의 문제점



양 기 원  
효리 애계원 대표

**축**산이란 목초 또는 곡물로 만든 사료속에 들어 있는 식물유지 또는 식물 단백질을 동물이 섭취하여 동물체내 속에서 동물단백질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인간의 식량(계란, 우유, 고기)으로 생산하는 업종이다.

이 축산업 중에서도 채란 양계산업은 기술 집약형의 산업이며 기술대응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므로 앞으로 기술개발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계란은 우리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약 23%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생산과정이 너

무나 낙후된 실정이다.

식량 생산자로서 경제적인 견지로 볼 때 아직도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 및 사양관리의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본다.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 요구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간에 빠른 시일내에 대책과 적응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양계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자가 단결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업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볼 때 우리나라 채란농가도 2010년후에는 약 400~500농가만 살아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암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 채란 농장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치열한 세계 경쟁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몇가지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 1. 병아리 문제

우리나라 축산기반은 부화장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각 부화장마다 합리적인 사양관리로 제일 좋은 병아리를 생산해서 우리 농장측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우리 농장측은 솔직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MG, MS가 없게 생산한 병아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험으로 봐서 많은 손실을 보아온게 사실이다.

그리고 농장은 같은 일령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생산한 종란을 가지고 부화시킨 병아리

를 원하는데 부화장측도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일령으로 50,000~60,000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자면 엄청난 자본의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장측에서 좋은 병아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즉, 부화장에 이익을 주는 체제 구축을 하지 않으면 부화장도 농장도 모두 경영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부화장이 좋은 경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장측도 질 좋은 병아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농장도 경영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다.

이 병아리 문제는 부화장, 농장, 사료공장 모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만들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세계 경쟁속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본다.

솔직히 말씀드려 앞으로 2010년쯤 되면 미국 병아리가 절반 값으로 우리들 농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 2. 사료문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농장측에서 사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절대로 가격 경쟁만 하다보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 제조는 하지 못한다.

아무튼 사료공장에 충분한 이익을 드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를 제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쪽이 농장에 이익을 더 가지고 온다고 본다.

20년 이상 우리농장 생산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필자는 사료공장과 농장이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설곳이 없다고 본다.

배합사료 제조 프로젝트를 볼 것 같으면 사료 공장 방식은 가격 중시형 즉, 공장경영 데이터, 연구데이터의 학문을 생각하면서 사료 제조를 하고 농장방식은 생산성 중시형 즉, 학문 경영분석 데이터, 기상데이터를 가지고 배합사료 제조를 생각하는데 이 상반된 생각을 혼합시켜 정말로 서로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 않는한 농장측에서 바라는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육성사료, 육성관리가 양계사업의 성패가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다.

농장측이 바라는 성적은 적어도 연평균 83% 이상, 일난중 53.54g 이상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계 경쟁속에서 도태되고 만다. 지금 선진국은 일주일 배합비로 가장 경제적인 사료를 제조하여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이미 일주일 배합비 사료에 도전했다. 충분한 이론을 가지고 닭생리에 맞는 사료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료를 제조하는 것은 사료공장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한 계군이 지방계가 된 것을 무조건 사료 탓으로만 돌리는데 물론 사료에도 조금은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농장측의 사양관리 노하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제는 농장과 사료공장이 좀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플러스가 되는 시스템구축을 하지 않으면 세계 경

쟁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료는 계란생산비 중에서 65%나 되니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 3. 질병문제

질병문제만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다. 이제는 질병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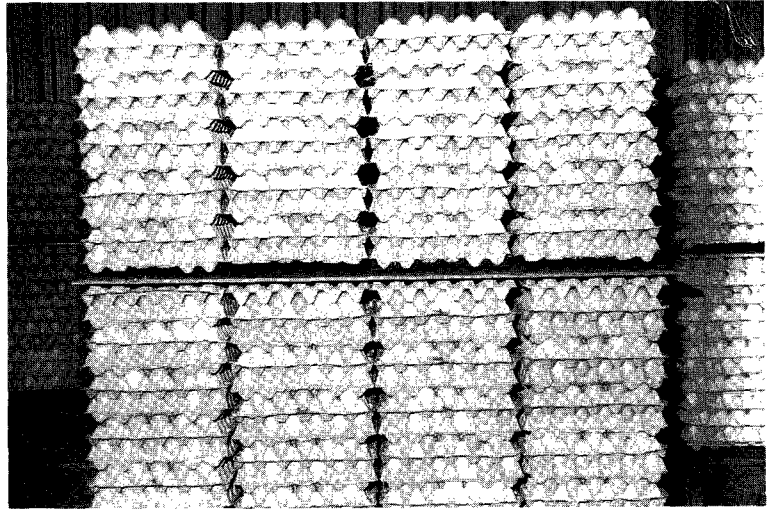
기간은 적어도 20년 이상 목표설정을 해서 제일 다루기 쉬운 질병부터 1년이나 2년 기간을 설정하여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국가연구기관, 사료공장 등에서 꾸준히 노력해야만이 반드시 질병 전쟁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사견이지만 각 도별로 능력있는 농장을 선정하여 질병 연구실을 두어 각 지역별로 질병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 정보교환하고 또한, 국가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구축이 가장 빠른기간 내에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본다.

### 4. 농장의 사양관리 문제

이 문제는 부화장의 병아리문제와 농장의



사양관리문제를 병합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나 일반농장에서는 병아리를 입추할 때 병아리에 대한 정보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우선 종계관리부터 그리고 몇 일령의 종계가 생산한 병아리인지 또 같은 종계의 일령이라 할지라도 생산된 병아리 체중은 상당히 폭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아리 입추시 대·중·소로 선별하여 주면 농장에서 몇 수 폐사없이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대·중·소로 선별하여 주는 부화장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농장과 부화장이 서로 정보 교환하여 서로가 이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면 질병문제, 육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병아리를 공급했다면 그 부화장은 설곳이 없어 결국 자멸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생산비문제, 환기 구조문제, A/S처리문제, 견고성문제, 계사규모, 판매(유통), 전기, 컴퓨터, 계사구조(개방, 무창, 저상, 고상), 사양가의 기술수준, 병아리질병, 사료 등등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의 자기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인데 노동력이 없다 보니 양계산업의 내·외부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도로 양계인 앞에 밀려오고 있다. 즉 노동력이 없다보니 자동화를 생각하였으며 정보부족 노력부족으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설자동화는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제반 요소에 너무나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자기 개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천문학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 선진국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농장측에서 부화장과 사료공장에 정보를 주어 품질 좋은 병아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를 제조하여 참으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10월 초순 우리 양계연구회 회원 9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하루 종일 병아리문제, 육성문제, 질병문제, 사료문제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왔다.

어느 대규모 농장의 연평균 산란율 성적을 보니 85.3%로 우리 농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성적을 내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1970년 이후 농촌노동이 도시진

출로 농촌노임이 농업노동의 생산성보다 앞질러 높아졌고 농촌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재를 첫째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양계도 이제 장치화 산업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양관리 기술만이 아니고 기계, 전기를 사용하는 기술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재를 구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양계 경영은 육성이 중요한데 수준 높은 관리자가 없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사양관리 기술의 습득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사계절의 기온 습도의 관련성 그리고 환기량 확보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춥다고 산란하지 않고 덥다고 산란하지 않으면 고도로 생산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양계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경제성을 중시하는 육성, 생산성을 중시하는 육성을 실행해야만 한다. 아무튼 육성 과정이 채란양계 전체과정에서 80%이상 중요하다.

육성과정에서 잘 육성되고 안되고 하는 데에서 생산성은 이미 판가름이 난다. 즉 골격의 발육은 12주령(84일령)에 이미 90%가 완성되며 골격 발육이 부진한 육성계는 체중도달과 균일성에 관계없이 지방계가 되기 쉽다. 즉 골격발육 및 체중은 시설, 사양관리, 사료, 방역 이 모든 조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체중조절 정착, 육성계 시설문제, 육성계 사료개발문제, 육성계 점등문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생산비가 낮아져야만 경영합리화를 추구할 수가 있다고 본다.

## 5. 시설문제

시설문제만 보더라도 계사의 기초문제(80m 길이면 30cm 경사를 주는 방법) 또 환기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로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바로 대학교를 입학하여 중·고등학교 기초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맞이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업계는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

우리 업계를 지고갈 후계자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기술을 이전시켜 주고 학계, 사료공장, 농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채란업계는 설 땅이 없다.

## 6. 계란 안전성과 유통문제

이제는 소비자를 위한 계란 안전성 문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지금 매일 TV 보도를 보면 식품안전성 문제를 호되게 질책하는 걸 보면 계란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4~5년 이후부터 정말로 심각한 위생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업계에서 도태되고 만다.

정말로 사료선정을 잘 하고 질병을 컨트롤

하여 생산된 계란을 G.P기계로 세척, 살균 처리, 건조시킴은 물론 오존 등으로 다시 살균을 시켜 소비자 식탁까지 갈 수 있는 위생문제를 생각하여 상인도 이익을 주고 농장도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유통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농장은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 적어도 계란을 생산해서 일주일 이내에 소비하는 유통구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농장 혼자 힘만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가장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외면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계란 가격도 평균 100원 이상 받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농장도 사원에게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주지 않으면 농장에 입사한 사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계란 유통 그리고 계란 안전성과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전과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산재료인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불가피한데 이런 문제점들을 한두사람 힘으로는 어려운 현실이다. DAY+0 유통개념으로 노력해 나가자.

끝으로 1998년에도 대한양계협회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제시를 하여 주고 우리 업계도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양계**